프랑스 상영 업자와 배급 업자

KOFIC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 상영 업자와 배급 업자 관계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 통신원 김민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 년 10 월 21 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주요 상영 업자와 배급 업자 / 1

02

업자들 사이의 관계 / 8

03

자료 출처 / 9

1. 주요 상영 업자와 배급 업자

이 장에서는 피에르 코프(Pierre Kopp)의 보고서, 「집중화에 대항하는 영화계 (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프랑스의 주요 상영 업자, 배급 업자들과 그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상영 업자

아래의 [표 1]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장 사업자 10개의 목록과 그들이 보유한 스크린 수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프랑스 극장 사업자들 중 가장 많은 스크린 수를 보유한 사업자는 고몽-파테(Gaumont-Pathé)로 프랑스 전체 스크린의 13.8 %를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세제에르 (CGR)와 위제세 (UGC)는 각각 7.8 %, 7.5 %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1]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장 사업자

표 내용 : 2014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장 사업자
CNC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

극장 사업자	스크린 수 (비율, 단위: 퍼센트)
고몽-파테 (Gaumont-Pathé)	782 (13.8 %)
세제에르 (CGR)	440 (7.8 %)
위제세 (UGC)	426 (7.5 %)
캅 시네마 (Cap'Cinéma)	148 (2.6 %)
시네마 알프 (Cinéma Alpes)	108 (1.9 %)
시네빌(Cinéville)	98 (1.7 %)
메가라마 (Mégarama)	88 (1.6 %)
키네폴리스 (Kinépolis)	87 (1.5 %)
엠카되 (MK2)	65 (1.2 %)
퐁 스네스 (Font-SNES)	64 (1 %)

자료출처: 「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 Pierre KOPP, 2016년 6월 7일.

대형 극장 사업자들은 멀티플렉스라는 형태의 영화관이 생겨난 이래로, 계속해서 작은 독립 영화관을 사들이면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프랑스에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파리 지역에서는 고몽-파테 (Gaumont-Pathé), 위제세 (UGC), 엠카되 (MK2, 파리 지역에만 존재)가, 지방에서는 세제에르 (CGR) 영화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대형 극장 사업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보다는 카르텔 형태의 상부상조 관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이들의 영향력은 영화관의 입장료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장 사업자 5곳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몽-파테 (Gaumont-Pathé)

고몽-파테 (Gaumont-Pathé) 영화관은 파테 (Pathé)와 고몽 (Gaumont), 두 그룹이 만든 대형 극장 체인이다. 이 극장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홈페이지: http://www.cinemasgaumontpathe.com

세제에르 (CGR)

세제에르 시네마 (CGR cinémas) 그룹은 설립자 조르쥬 레이몽(Georges-Raymond)의 이름을 딴 'Circuit Georges-Raymond'의 약자로 이름 붙여졌다. 프랑스에서 3번 째로 큰 대형 극장 사업자로 프랑스 내 41개 도시, 총 474개의 영화관 (40개의 멀티플렉스와 7개의 플렉스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프랑스 전체 관람객의 10 %인 2000만 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홈페이지: http://www.cgrcinemas.fr

위제세 (UGC)

위제세 (UGC)는 1971년 설립된 극장 사업자로 프랑스 내 407관, 벨기에에 43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50 편의 영화를 상영, 34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위제세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 파리의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쇼핑 센터에 위치한 위제세 시네시테 (UGC Ciné Cité)점은 파리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 멀티플렉스에서는 연간 3만 명의 관람객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ugc.fr/home.html, http://www.ugc.fr/groupeUGCPresentation.html

시네빌(Cinéville)

시네빌(Cinéville)은 프랑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영화 체인이다. 2014년 기준 98 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cineville.fr

엠카되 (MK2)

엠카되 (MK2)는 프랑스에서는 파리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극장 체인으로 파리와 스페인 (2014년부터)에 26개의 극장, 181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극장 사업자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연간 800만 명의 관람객이 이 영화 체인을 방문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치만

살펴보면, 엠카되 (MK2)는 프랑스 내 10개 극장, 6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60만 명의 관람객수를 기록하고 있다. 파리 내 시장 점유율은 20 %이다. 이 극장 사업자는 아르 에 에세(Art et essai)[1]으로서 첫번째 대형 극장 체인인 것이 다른 극장 사업자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인데, 현재까지 아르 에 에세(Art et essai) 영화를 총 8만 회 상영했다.
홈페이지: http://www.mk2.com, http://mk2pro.com/mk2-cinemas/

아래의 [표 2]는 프랑스 주요 세 개 극장 사업자인 세제에르 (CGR), 위제세 (UGC), 고몽 파테 (Gaumont-Pathé)의 시장 점유율(2014년 기준)을 보여준다. 각각의 수치는 영화관 수, 스크린 수, 상영 횟수, 입장객 수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영화관의 수만 보면 전체 영화관 수 대비 9.5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영 횟수와 입장객의 수가 전체의 44.9 %, 50.1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세 영화관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수익을 따져보아도 이들 영화관에서 창출된 수익은 전체 영화 극장 수익의 52.1 % (2014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대비하여 6 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로 프랑스 극장 사업자의 집중화의 강도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프랑스 주요 세 개 극장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표 내용 : 2014년 프랑스 주요 세 개 극장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세제에르 (CGR) 위제세 (UGC) 고몽 파테 (Gaumont-Pathé)	전체 수	시장 점유율 (단위: 퍼센트)
영화관	171	2107	9.5 %
스크린	1724	6051	32.3 %
상영 횟수 (단위: 천 회)	328941	8356	44.9 %
관객수 (단위: 백만 명)	10019	235	50.1 %

자료출처:「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 Pierre KOPP, 2016년 6월 7일.

아래의 [표 3]은 프랑스 파리와 수도권 지역 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 표는 파리 지역의 세 극장 사업자인 위제세 (UGC), 고몽 파테 (Gaumont-Pathé), 엠카되 (MK2)의 집중도를 보여주는데 이 세 극장의 스크린 수와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파리 지역 전체의 71.5 %, 88.6 %로 집중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독립 영화, 작가 주의 영화 상영에 전문화되어 있는 극장을 말한다.

[표 3] 극장 집중도

표 내용 : 2014년 프랑스 파리 주요 세 개 극장 사업자의 시장 집중도 파리 내 세 극장 사업자 (위제세 (UGC), 고몽 파테 (Gaumont-Pathé), 엠카되 (MK2) 기준)			
	위제세 (UGC) 고몽 파테 (Gaumont-Pathé) 엠카되 (MK2)	그 외	파리 전체
스크린 수 (단위: 개)	289 (71.5 %)	115 (28.5 %)	404 (100 %)
시장 규모	1억 6020만 유로 (88.6 %)	2050만 유로 (11.4 %)	1억 8070만 유로 (100 %)

자료출처: 「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 Pierre KOPP, 2016년 6월 7일.

2) 배급 업자

아래의 [표 4]는 2014년 프랑스의 주요 배급사들의 목록, 입장수, 입장수 비율, 배급 영화 수, 시장 점유율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매출의 39.3 %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4개의 배급사 중, 3개의 배급사가 미국 회사이다.

[표 4] 2014년 프랑스의 배급사들 1

표 내용 : 2014년 배급사들의 입장수, 입장수 비율, 영화 수, 시장 점유율				
	입장수 (단위: 명)	**입장수 비율 (단위: 퍼센트)**	**영화 수 (단위: 편)**	**시장 점유율 (단위: 퍼센트)**
20세기 폭스 (20th)	27,937,169	13.3	25	14.8
워너 (Warner)	17,704,160	8.4	19	9.4
위제세 (UGC)	14,963,099	7.1	10	8
디즈니 (Disney)	13,364,768	6.4	11	7.1
메트로폴리탄 (Metropolitan)	12,263,349	5.8	25	6.5
고몽 (Gaumont)	12,039,689	5.7	13	6.4
에스엔데 (SND)	11,539,810	5.5	14	6.1
파테 (Pathé)	11,067,456	5.3	15	5.9
와일드 번치 (Wild Bunch)	10,190,076	4.8	16	5.4

스튜디오 카날 (Studio Canal)	10,040,146	4.8	14	5.3
마르스 (Mars)	9,637,700	4.6	18	5.2
파라마운트 (Paramount)	8,963,700	4.3	13	4.8
유로파코르프 (Europacorp)	8,384,087	4	10	4.5
유니버셜 (Universal)	7,111,440	3.4	19	3.8
라 팍트 (La pacte)	6,713,407	3.2	21	3.5
소니 (Sony)	5,953,238	2.8	8	3.2
디아파나 (Diaphana)	5,006,396	2.4	16	2.7
피라미드 (Pyramide)	1,610,854	0.8	15	-
메멘토 (Memento)	1,316,259	0.6	6	-
아드 비탐 (Ad Vitam)	1,034,742	0.5	11	-
오 에 쿠르 (Haut et Court)	974,846	0.5	9	-
오세앙 (Océan)	957,248	0.5	4	-
제베카 (Gebeka)	953,035	0.5	2	-
로상쥬 (Losange)	831,009	0.4	10	-
Préau (프레오)	857,845	0.4	2	-
기타	8,532,241	4.1	337	-
총	**210,107,453**	**100**	**663**	**-**

자료출처: 「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 Pierre KOPP, 2016년 6월 7일.

[표 5]는 위의 [표 4]의 내용은 상위 5개, 10개 배급사, 프랑스 회사, 미국 회사, 계열 관계가 있느 경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계열 관계가 있는 경우를 눈여겨 볼 만 한데, 왜냐하면 이는 배급사가 영화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4]에 제시된 목록 중 11개의 배급사가 대형 영화 그룹과 연결되

어 있어 있고, 이들이전체 시장의 75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11개의 배급사[2]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세기 폭스 (20th), 워너 (Warner), 위제세 (UGC), 에스엔데 (SND), 디즈니 (Disney), 고몽 (Gaumont), 파테 (Pathé), 스튀디오 카날 (Studio Canal), 파라마운트 (Paramount), 유니버셜 (Universal), 소니 (Sony).

[표 5] 2014년 프랑스의 배급사들 2

표 내용 : 2014년 배급사들(상위 5개, 상위 10개, 프랑스 회사, 미국 회사, 계열 관계가 있는 경우)의 입장수, 입장수 비율, 영화 수, 시장 점유율

	입장수 (단위: 명)	입장수 비율 (단위: 퍼센트)	영화 수 (단위: 편)	시장 점유율 (단위: 퍼센트)
상위 5개	86,232,545	41.04	90	45.8
상위 10개	141,109,722	67.16	162	74.9
프랑스 회사	128,913,294	61.43	568	56.9
미국 회사	81,034,475	38.57	95	43.1
계열 관계가 있는 경우	**140,684,675**	**66.96**	**161**	**74.8**

자료출처: 「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 Pierre KOPP, 2016년 6월 7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배급사 8 곳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제세 (UGC), 고몽 (Gaumont), 파테 (Pathé)

위제세 (UGC), 고몽 (Gaumont), 파테 (Pathé)는 프랑스의 대형 배급사이다. 이들은 배급사일 뿐만 아니라 모두 영화 그룹으로서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그룹은 극장 사업자로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ugcdistribution.fr, http://www.gaumont.fr, http://www.pathefilms.com

에스엔데 (SND)

에스엔데 (SND)는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사 엠시스(M6) 그룹에 속해있는 영화 배급사이다. 프랑스의 3대 배급사 중 하나로서, 주요 역할은 영화와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구입, 관리,

[2] 이 중, 위제세 (UGC), 에스엔데 (SND), 고몽 (Gaumont), 파테 (Pathé), 스튀디오 카날 (Studio Canal)의 5 곳이 프랑스 배급사이다.

배급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있다. 배급 이외에 영화 제작사로서도 기능한다.
홈페이지: http://www.snd-films.com, http://www.groupem6.fr/le-groupe/activites/droits-audiovisuels/description.html

스튜디오 카날 (Studio Canal)

그룹 카날 플뤼스(Canal+) 산하의 스튜디오 카날(Studio Canal)은 유럽 내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 물의 제작, 저작권 구입, 배급, 해외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 내의 여러 부서 중, 극장 배급 부서가 프랑스 내 영화관의 영화 배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연간 50여 편의 영화를 배급한다.
홈페이지: http://www.studiocanal.com/fr/groupe-studiocanal/a-propos

와일드 번치 (Wild Bunch)

와일드 번치 (Wild Bunch)는 유럽 내 영화의 배급 업무을 주로 하는 배급사로 특히 해외 판매에 역량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Wild Bunch Distribution), 이탈리아 (BIM Distribution), 독일 (Wild Bunch Germany / Central Film), 베네룩스 (Wild Bunch Benelux) 등 유럽 전 지역에 배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wildbunch-distribution.com

마르스 필름 (Mars Films)

마르스 필름은 배급사이자 2015년에 프랑스에서 흥행한 영화 <미라클 벨리에>의 제작사이기도 하다.
홈페이지: http://www.marsdistribution.com

유로파코르프 (Europacorp)

유로파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뤽 베송(Luc Besson)이 1999년 설립한 영화 제작사, 배급사로 연간 8 편에서 12 편의 영화를 배급하고 있다. 유로파는 2011년부터 멀티플렉스 사업 분야에도 뛰어들었으나, 2016년 10월 1일, 보유한 두 개의 멀티플렉스를 고몽-파테 그룹에 매매했다.
홈페이지: http://www.europacorp-corporate.com/indexfr.html

2. 업자들 사이의 관계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 상영 업자, 배급 업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계열 관계와 지분 소유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계열 관계

앞서 1장에서 언급한 극장 사업자들과 배급사들 중, 뚜렷한 계열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위제세, 고몽, 파테 세 곳이다. 이들은 그룹 내, 극장 사업 분야와 배급 분야의 독립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로 위제세는 극장, 영화 제작, 배급, 영상물 저작권 사업, 고몽은 극장, 영화 제작, 배급, 애니메이션 제작(Gaumont Animation과 Xiam) 사업, 파테는 극장, 영화 제작, 배급, 해외 판매, 텔레비전 미디어 사업에 관여한다. 이 세 곳 이외에 에스엔데(SND), 스튜디오 카날도 주목할 만 하다. 이들은 대형 미디어 그룹인 엠시스(M6)와 카날 플뤼스의 자회사이다. 이들은 극장 체인과의 직접적인 계열 관계는 없지만, 프랑스의 대표적 미디어 그룹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극장 체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2) 지분 소유 관계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주요 상영 업자, 배급 업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지분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파테와 고몽, 마르스 필름과 스튜디오 카날의 두 관계 이외에 다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테와 고몽의 경우, 파테-고몽 극장 사업에 파테가 총 지분의 66 %, 고몽이 총 지분의 34 %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마르스 필름과 스튜디오 카날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카날이 마르스 필름 지분의 30 % 를 획득했다는 2015년 9월 기사가 있었다. 이 대가로 마르스 필름의 설립자가 스튜디오 카날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있었다.

[자료출처]

「집중화에 대항하는 영화계 (Le cinema à l'épreuve des phénomènes de concentration)」, Pierre KOPP, 2016년 6월 7일.
「La charge des « indépendants » du cinéma contre les circuits de salles」, <르몽드 (Le Monde)>, 2016년 6월 8일.
「Canal+ renforce ses positions dans le cinéma français」, <르몽드 (Le Monde)>, 2015년 9월 30일.
「EuropaCorp, la société de Luc Besson, vend ses salles de cinéma」, <르몽드 (Le Monde)>, 2016년 10월 1일.

극장 사업자
고몽-파테 (Gaumont-Pathé) (http://www.cinemasgaumontpathe.com)
세제에르 (CGR) (http://www.cgrcinemas.fr)
위제세 (UGC) (http://www.ugc.fr/home.html)
시네빌(Cinéville) (http://www.cineville.fr)
엠카되 (MK2) (http://www.mk2.com)

배급사
위제세 (http://www.ugcdistribution.fr)
고몽 (http://www.gaumont.fr),
파테 (http://www.pathefilms.com)
스튜디오 카날 (Studio Canal)
에스엔데 (SND) (http://www.snd-films.com)
와일드 번치 (Wild Bunch) (http://www.wildbunch-distribution.com)
마르스 필름 (Mars Films) (http://www.marsdistribution.com)
유로파코르프 (Europacorp) (http://www.europacorp-corporate.com/indexfr.html)

그룹
위제세 (http://www.ugc.fr/groupeUGCPresentation.html)
M6 (http://www.groupem6.fr/le-groupe/activites/droits-audiovisuels/description.html)